



추석연휴기간 112신고 일 평균 33건

교통사고 하루 7.7건꼴... 10.3명 병원행
가정폭력 신고도 하루 평균 13.7건 접수
30대 삼양동 화력발전소 앞 해상서 참변

추석 연휴 도내에선 각종 사건·사고가 속출했고 일부는 안타까운 사망으로 이어졌다.

연휴 첫날인 12일 오전 7시16분쯤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장 외국인 숙소에서 LP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캄보디아 국적의 P(35)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의 중상을 입고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폭발이 일어난 곳은 외국인 숙소에 마련된 간이 부엌으로 중간밸브 없이 설치된 가스레인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 다음날에는 식중독 사고도 있었다. 14일 0시47분쯤 제주시 한림읍 소재 펜션에서 투숙하던 관광객 이모(56)씨 등 6명(남 2명·여 4명)이 구토와 복통을 호소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보건당국은 이씨 일행이 전날 식사로 회를 먹은 뒤 복통이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해당 음식점에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휴 마지막날인 15일 낮 12시4분쯤에는 제주시 삼양1동 소재 화력발전소 앞 해상에서 불놀이를 하던 정모(38)씨가 화력발전소 취수구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씨는 신고 접수 41분 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아울러 지난 11일 오후 10시37분쯤 제주시 도남우체국 사거리에서 택시 2대와 쏘타페가 잇따라 충돌해 4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연휴 기간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실시한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에



연휴 전날인 지난 11일 오후 10시37분쯤 제주시 도남우체국 사거리에서 3중 충돌사고가 발생해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기간 중 신고된 중요범죄 112신고는 하루 평균 32.6건으로 지난해(44.2건)보다 26.2% 감소했다.

이러 가정폭력신고는 일평균 13.7건이 접수돼 전년(17.4건) 대비 21.3

% 줄었으며,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7.7건이 발생해 10.3명이 부상을 입었다.

제주경찰청은 특별치안활동 기간 제주도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693회의 범죄예방진단과 1641회의 범죄예방요령 홍보에 나선 바 있다. 송은범기자

제주, 부적합 가로등·신호등 '최대'

이용주 국회의원 분석
5674개 개선조치 시급
보행자 감전사고 노출

제주지역에 설치된 가로등·신호등 5600여개가 부적합 설비로 판정됐지만 지자체의 예산 및 관심 부족으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도민과 관광객 등 보행자들이 감전사고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며 개선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 여수갑)이 최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주에 설치된 가로등·신호등은 5674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태풍과 강수가 많은 제주로서는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기간 전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신호등은 제주를 포함해 2만6675개이며 이중 2296개만 개·보수를 완료했다. 나머지 91.4%인 2만4379개의 설비는 그대로 방치됐다. 특히 이들 설비 중 415개가 3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절반 수준인 185개(44.6%)로 가장 많고 경북 72개, 전남 64개, 충남 47개, 경기 35개 등이다.

문제는 전기설비 유지관리 의무를 갖는 지자체에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개선명령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등한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4년부터 3년간 부적합 전기시설 방치로 인해 발생한 야외 감전사고는 1600여 건이며 사망자 수는 74명에 이른다. 백금탁기자

20일새 같은집 세번 턴 절도범 징역 1년

같은 집을 세번 연속으로 턴 20대 절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낮 12시쯤 제주시내 한 주택에 침입해 저금통에 있던 5만원 상당의 동전과 속옷 4개를 훔쳤다. 이어 다음날 1일 낮 12시쯤 또 같은집에 침입해 속옷 4개를 훔쳤으며, 같은날 19일 낮 12시 29분쯤 세번째 침입했다.

아울러 문씨는 올해 4월 11일 오

후 2시20분쯤 제주시내 한 종합병원 간호학생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 15만원과 휴대폰 2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훔쳤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를 이용해 46만8840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문씨는 올해 5월 18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휴업중인 제주시내 한 식당에 침입해 소주와 맥주, 양주 등을 먹은 뒤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특별단속

제주시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며 고가로 판매하는 속칭 '뺨다방'에 대해 11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뺨다방'을 차려두고 라면, 화장지, 밀가루 등을 사은품으로 유인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체험관이 대상이다. '뺨다방'은 보통 음성적으로 영업을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시니어감시원과 협조체계를 유지해 모니터링 강화 및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필요

시 자치경찰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제주시는 '뺨다방'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니어감시원을 활용, 경로당 등 147개소 대상으로 순회지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휘발유값 소폭 상승

주유소 ㄹ당 1615.54원

추석 연휴를 전후해 제주지역 휘발유·경유 가격이 소폭 올랐다. 또한 제주시보다는 서귀포시 기름값이 다소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오전 기준 제주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ㄹ당(이하 생략) 1615.54원으로 전국평균 1525.09원에 견줘 90.45원 비싸다. 1위 서울 1627.07원, 과도 간격을 11.53원으로 좁혔다.

전국적으로 기름 값은 오전·오후 변동이 있지만 제주지역 기름 값의 오름세는 꾸준하게 조금씩 오르면서 지난 8월 유류세 인하 종료 이후 휘발유 가격은 16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 최저 가격인 1400원대 초반인 것과는 200원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5만원 주유시 제주는 30.9ㄹ, 전국의 최저가 주유소(1400~1450원대)에 견주면 4~5ㄹ 정도 적다.

경유도 제주는 1462.09원으로 전국평균 1375.87원보다 86.22원 높다. 유류 운송비와 주유소 부지 임대료 위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담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백금탁기자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한마당 추석을 맞아 14일 제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한마당'에서 참가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동차검사 문자 서비스

제주시가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며 유효기한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는 자가용은 최초 등록후 4년이 도래한 시점부터 첫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영업용이나 화물자동차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지연할 경우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또는 전화(1577-0990)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고대모기자

전세 렌터카

2018. 12. 17. 제23회 소비자의날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수상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처럼 세차 탈때 만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주는 카테크의 시작 전세렌터카로 갈아타세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켜주세요!

개인, 법인 사업자 경비 처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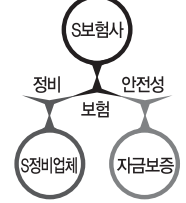
매월 관리비와 기름값으로 풀옵션 차량을 탈 수 있다.
주행거리 제한 없는 상품
우리가족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고액의 신용상태 상관없이 이용가능
무료정비서비스는 S정비업체 사고처리하는 S화재
4년마다 원하는 신모델 차량을 순환으로 탈 수 있다.
4년 뒤 보증금 100% 환불

이제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편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셔야 할때.

내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전차종 가능...



- × 세금 부담
- × 정비 부담
- × 보험 부담
- × 주행거리 제한



국내최초 판매량(1위) | WNCAR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방수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물당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제주60+교육센터 교육생 모집

인지개발교육지도사양성과정

사단법인느영나영복지공동체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무료 취업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의 전문성을 갖추고자 인지
개발교육지도사 양성과정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교육명	교육기간	모집인원
인지개발교육지도사 *집중력, 기억력 향상을 돕기 위한 치매 예방 교육지도사 양성과정	2019. 9월 말	20명

※ 출석 80%이상 수료 후 자격검정을 거쳐 자격증 발급
※ 모집인원에 따라 교육일정이 조기마감 또는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수료 후 노인일자리 취업연계 가능

【신청대상】 60세 이상 건강한 분
(50세이상 관심 있는 분에 한 해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19. 09. 09. ~ 2019. 09. 23.
【신청장소】 직접방문접수 / 사단법인느영나영복지공동체
(제주시 용담로 128, 2층)
【상담전화】 742-0606

※ 제주60+교육센터는 기업 맞춤형 양성 및 60+의 다양한 사회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사단법인느영나영복지공동체에서 운영합니다.



사단법인
느영나영복지공동체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굴요목

유라실생 특묘 정식 할 수 있는 묘목

유라실생	3년생
감 평	3년생
천 해 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향 금 향	4년생
하래조생	3년생
탱 자 묘	1년생, 수고 70전

한림종묘

010-3690-2453